

# 북극점 탐험의 진실 누가 진짜로 북극점에 먼저 갔을까

## 보물창고 북극

북극은 오래 전부터 상상력의 보물창고였다. 아시아에서 북극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지만, 기원전 그리스인들에게 이미 북극은 '여름에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 해가 뜨지 않는 곳', '북방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북극은 원래 거주민이 있는 곳이다. 이미 기원전부터 북극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인들이 북극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지금부터 겨우 1,00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린란드 빙하와 북반구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800년 후반에서 1,100년까지 북반구는 매우 따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린란드에 최초로 유럽인이 정착하였다. 이 최초의 정착민은 살인사건으로 고국인 노르웨이에서 추방된 바이킹(Viking)인 붉은 에릭(Erik the Red)이었다. 그가 도착한 미지의 땅은 빙하 사이로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물개와 바다코끼리, 그리고 물고기가 풍부했다.

에릭은 이 땅을 그린란드라고 이름 붙이고 아이슬란드에서 이주민을 모집했다. 985~986년 경 에릭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신세계를 찾아 떠난 450명의 사람들은 술한 고생 끝에 그린란드에 도착했다. 그들은 작은 농장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그린란드의 바이킹은 1,100년대 후반까지 융성하여 거주민이 약 3,000명이 넘을 정도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점차 줄어들었다. 날씨가 추워지고 유빙이 두터워지면서 가축이 긴 겨울을 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유럽에서 물자를 싣고 오는 배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린란드 기후가 변하자 북극 원주민인 툴레 이누이트(Thule inuit)가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바이킹과 만나 자주 다투게 되었다. 결국 북극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인 바이킹은 1,500년대에 그린란드를 떠나고 말았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희생을 통해 이제 북극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인류의 도전정신이 살아 있는 한  
북극 탐험은 계속될 것이며,  
북극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탐사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북극항로를 찾아라!**

16세기 유럽, 대항해의 바람이 북극에도 불었다. 북극 탐험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북극 탐험을 통해 유럽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 한편 유럽에서 북극을 지나 동양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북극항로 개척은 지구상의 마지막 무역로를 개척하는 탐험이었다.

어떤 탐험가들은 명예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탐험기를 책으로 펴냈고, 물개와 고래를 잡았다. 금광을 찾으며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에 힘입어 북극은 점차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북극항로는 16세기 유럽에서 누구도 가 본 적이 없는 해상통로였지만, 당시 영국의 탐험가들에게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새로운 항로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아프리카의 끝을 돌아 아시아를 향했다면, 영국은 북극해를 가로질러 아시아로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빠른 북극항로를 찾기 위한 탐험가들의 노력으로 인류는 북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북서항로를 찾던 영국 탐험가 존 데이비스(John Davis)는 1585~1587년 세 차례의 항해를 통해 그린란드 서쪽에서 배핀 섬을 발견했고 배핀 섬 일부와 그린란드 서쪽 해안의 수백 킬로미터, 그리고 캐나다 북부의 래브라도 해안 대부분을 상세한 지도로 작성하였다. 북동항로를 찾던 네덜란드 탐험가 빌렘 바렌츠(Willem Barents)는 1596년 스피츠베르겐 섬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영국 탐험가 헨리 허드슨(Henry Hudson)은 1607년 그린란드 동해안 해안선 지도를 상세하게 그렸다.

러시아는 이미 16세기부터 시베리아와 북극 해상항로를 이용하여 시베리아와 교역을 해오면서 북동항로 개척에 적극적이었다. 러시아는 1728년 덴마크 탐험가 비투스 베링(Vitus Bering)을 앞세워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해협이 있음을 확인한 후 1733~1745년 사이에 1,000명이 넘는 탐험가들을 보내 베링 해협(Bering Strait)을 살살이 탐험했다. 영국의 윌리엄 패리(William Parry)는 1819년 랭커스터 해협(Lancaster Sound)에서 출발하여 데본 섬(Devon Island)에서 멜빌 섬(Melville Island)까지 패리 해협(Parry Channel)을 개척하였다. 영국은 1845년 존 프랭클린 경(Sir John Franklin, 1786~1847)을 지휘관으로 북서항로탐험대를 파견하였으나, 탐험대 128명이 탐험선 에레부스 호, 테러 호와 함께 실종되었다. 이들을 찾기 위하여 10년간 36척의 배를 포함한 수색대와 탐험대가 나섰다. 그 가운데 프랭클린을 찾기 위해 1850~1854년 길을 나섰던 맥클루어(Robert McClure)는 배와 썰매로 북서항로를 지나며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한편 탐험대들이 발견한 유해를 살펴보면 프랭클린 탐험대원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죽은 동료의 살을 먹었을 정도로 비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훗날 프랭클린 탐험대에서 초기에 죽은 대원들의 일부는 납중독으로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만해도 캔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해서 캔에는 상당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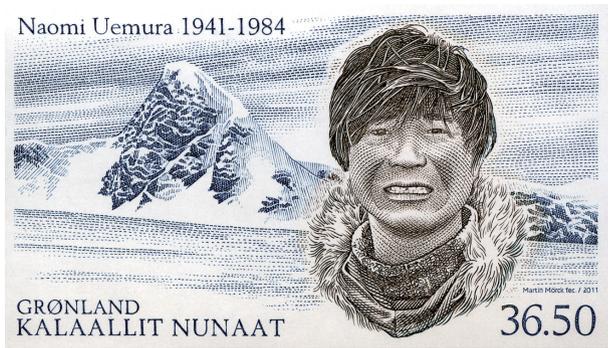
반면,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수많은 탐험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북동항로가 처음으로 열렸다. 스웨덴의 노르덴스크올드(Adolf Nordenskjöld)는 베가(Vega) 호를 이끌고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를 출발하여 시베리아에서 9개월을 보내고 1879년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함으로써 마침내 북동항로를 인류사상 처음으로 통과하는 영광을 얻었다.

북서항로 항해는 북동항로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했다.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Roald Amundsen)은 1903년부터 1906년에 걸친 어려운 항해 끝에 북서항로를 통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이르는데 성공하여, 북서항로를 처음으로 항해했다. 선장아들로 태어난 아문센은 어머니의 뜻대로 의학을 공부하다가 탐험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북극 원주민들과 몇 년을 함께 살면서 그들이 불을 만들고, 먹고 살아가는 생활을 배운 결과 아문센은 큰 어려움 없이 북서항로를 개척했다.

북극항로가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고 수많은 생명과 배가 희생되었다. 비록 당시에는 이들 북극항로를 유럽과 북아메리카 또는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해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다시금 활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 북극점을 향하여

북극이 대륙인가 대양인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북극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북극점이 육지라면 북극은 대륙이고 북극점이 바다라면 북극을 대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북위 77도 시베리아 앞바다에서 산산조각이



역사상 최초로 1978년 혼자서 북극점에 도달한  
일본 탐험가 나오미 우에무라 (Naomi Uemura)  
그는 1984년 2월 북아메리카의 최고봉인  
디날리 봉을 등정하고 내려오다가 실종되었다

난 자넷(Jeannette) 호 잔해가 북극을 가로질러 그린란드 남서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노르웨이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놀라운 가설을 세운다. 얼음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어 얼음에 갇혀도 자넷 호의 잔해처럼 북극 얼음을 따라 항해하면 북극점을 지나 북극을 가로질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얼음에 부서지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한 프람(Fram) 호를 타고 1893~1896년까지 장장 3년간의 탐험을 통해 마침내 북위 86도까지 도달하였다.

캐나다 북극과 그린란드에서 쌓은 경험과 에스키모(Eskimo)에게 배운 생존방식으로 무장한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Robert Peary)는 1909년 4월 북극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하였다. 한편 한때 피어리와 함께 그린란드 탐사를 함께 했던 미국 의사 프레더릭 쿡(Frederick Cook)은 자신이 피어리보다 한 해 앞선 1908년 4월 21일 북극점에 도착했으나 북극 데본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 했기 때문에 1909년이 되어서야 기지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훗날 쿡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피어리가 북극점에 도달한 것으로 되었지만, 아직도 논란은 남아있다. 비행선 노르즈(Norge)에서 북극점을 본 사람은 아문센(Roald Amundsen) 탐험대로 1926년 5월 12일이었다.

1958년, 미국의 핵잠수함 노틸러스(Nautilus) 호가 북극해를 99시간 만에 종단했고, 1968~1969년 영국 윌리 허버트(Wally Herbert)와 세 명의 동료는 알래스카 포인트 배로우(Point Barrow)에서 스피츠베르겐 섬까지 북극을 종단하면서 북극의 대기, 물, 얼음에 대한 다양한 관찰과 연구를 하였다. 1977년 러시아 핵 쇄빙선 아르кти카(Arktika) 호가 선박으로는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1978년 일본 탐험가 우에무라(Naomi Uemura)가 개썰매를 타고 단독으로 북극점을 밟았다. 1986년 프랑스 장-루이 에띠엔느(Jean-Louis Etienne)는 단독으로, 여섯 명으로 구성된 미국 윌 스테거(Will Steger) 탐험대는 물품지원

을 받지 않고 북극점에 도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극지탐험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자신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지도 탐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오로라탐험대의 최종결과 선정섭 대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하였고, 1995년 허영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북극해빙단탐험대가 북극점을 지나 도보로 북극해를 종단하였다. 2005년 박영석 대장의 북극점 원정대가 북극점 도달에 성공했고, 2012년 홍성택 대장과 한국탐험대가 세계 최초로 베링 해협 횡단에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 북극 과학 탐사

19세기부터 과학자들의 북극 탐사도 활발해졌다. 1882~1883년 ‘국제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에 세계 11개국이 참여하여 북극을 탐사하였고, 빌헬머 스테판슨(Vilhjalmur Stefansson)은 1908~1918년까지 북극 지도를 제작하였다. 1932~1933년 제2차 ‘국제 극지의 해’ 탐사에서 북극 관측이 이루어졌다. 총 44개국이 참여한 제2차 국제 극지의 해 탐사에서는 지구의 전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자기, 오로라, 기상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관측하였고 총 40개의 상설 관측기지가 북극에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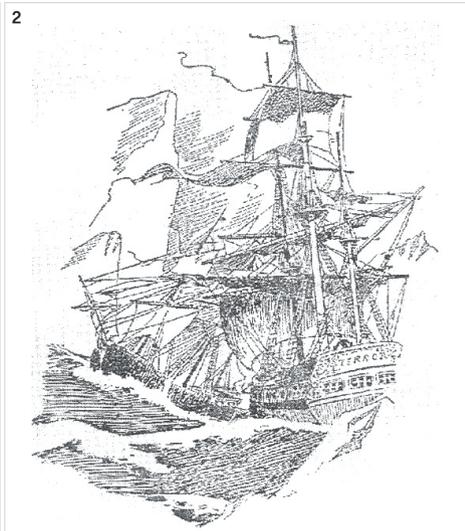
제3차 ‘국제 극지의 해’는 1957~1958년에 ‘국제 지구물리의 해(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대륙으로 이루어진 남극에 집중하여 남극 빙하 그리고 대기와 해양의 역학에 대한 빙하의 중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2007~2008년에 이루어진 제4차 ‘국제 극지의 해’ 탐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63개국이 참여하여, 약 220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2009년 네이처(Nature)지는 ‘국제 극지의 해가 주는 교훈’ 네 가지를 강조했다. 즉, 기후학자나 해양생태학자 등으로부터 극지 데이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 극지의 해’에서 얻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극지 정보는 특히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도 극지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며, 극지방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이 필요하고 특히 북극과 관련하여 북극 인근 국가인 미국, 러시아, 유럽,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지정학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희생을 통해 이제 북극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인류의 도전정신이 살아 있는 한 북극 탐험은 계속될 것이며, 북극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탐사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7~2008년  
국제 극지의 해 표상

© 독일 알프레드 베케너 해양극지연구소



- 1 창으로 사냥감을 노리는 북극 원주민
- 2 북서항로 탐험에 나선 테러 호와 에레부스 호
- 3 북극 탐험에 나선 유럽인
- 4 사냥에 나선 북극 원주민